“첫 무협영화…운명이었다”



전도연은 영화 ‘협녀, 칼의 기억’에서 처음으로 검술 액션을 소화했다. 비극적인 운명의 소용돌이에서 눈까지 먼 여인 월소는 전도연과 만나 생명을 얻었다. 사진제공 | 티피에스컴퍼니

전도연이 말하는 영화 ‘협녀’

맹인에 액션까지…인물 상황에만 몰입
공중부양 검술…스크린보니 미흡하다

전도연(42)은 도전을 거부하지 않는 배우다.

영화 속 그 어떤 배역을 맡아도 관객의 기대치에 부응한다. 멜로와 액션 등 장르도 거뜬히 넘나든다. 그렇게 인정받은 실력으로 지난해에는 국내 배우로 처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안 주하지 않는 변신’은 그를 설명하는 또 다른 수식어다.

전도연이 13일 개봉하는 영화 ‘협녀, 칼의 기억’(제작 티피에스컴퍼니)을 만난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실제로 제작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출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느꼈다”고 했다. 무협액션이었고, 처절한 운명 아래 앞을 보지 못하는 주인공을 표현해야 했지만 결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선뜻 결정했더니 그제야 소화해야 할 여러 것들이 보였다. 액션에 맹인이란 설정까지 부담이었다. 연출자 박흥식 감독에게 맹인 설정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했다.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인물과 상황에 몰입하는 방법밖엔 없었다.”

전도연이 박 감독으로부터 ‘협녀’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접한 때는 11년 전이다. 2004년 박 감독과 ‘인어공주’를 함께할 무렵이다. 전도연이 이 영화를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배경에는 이런 시간의 힘도 작용했다.

박 감독과는 2000년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까지 합해 벌써 세 번째 만남. 전도연은 “익숙해서 선택한 건 아니다”고 했다.

“서로 부딪치는 게 좋았고 그렇게 견뎌내는 과정이 즐거웠다.”

영화는 고려 말, 무인의 시대가 배경이다. 전도연은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검객들의 이야기 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살아낸다. 시간이 흘러도, 눈이 멀어도 변함없는 건 무술 실력. 갈대밭을 배경 삼아 김고은과 펼치는 검술 액션은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공중부양까지 해야 하는 액션의 경험이 없는 전도연에게 과정이 당연히 결코 쉽지 않았다. “어떠한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나이가 보인다”며 “촬영 때는 완벽한 줄 알았던 액션이 스크린에서 보니 잘 못한 것 같다”고 속내도 꺼냈다. 상대역 이병헌은 때때로 전도연의 액션 연기를 지켜보며 ‘못 한다’고 지적했다. 신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실제로 ‘협녀’는 전도연과 이병헌의 재회로도 관심을 더한다. 1999년 영화 ‘내 마음의 풍금’에서 초임교사와 늦깍이 학생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이들은 16년이 지나고 다시 만났다. 이번엔 뜨겁게 사랑했지만 서로 다른 운명을 받아들이는 비운의 연인이다.

전도연은 세 살 많은 이병헌을 “오빠”라고 부른다. 함께 연기하는 누구와도 살갑게 지내는 성격답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선 다르다. “감정적으로 강하게 부딪치는 장면이 워낙 많아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며 “자극을 주기보다 그 역할 그대로 바라보고, 편하게 대했다”고 돌이켰다.

전도연은 ‘협녀’에서 멈추지 않는다. 앞서 5월 멜로영화 ‘무뢰한’으로 저력을 과시한 뒤 이번엔 제작비 100억원대 블록버스터의 주역까지 거뜬히 해내 관객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연말에는 공유와 함께한 멜로 ‘남과 여’로 다시 관객을 찾는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위로공단’·‘기적의 피아노’…다큐 영화의 역습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13일 개봉
9월 개봉작 ‘기적의 피아노’도 입소문

다큐멘터리 영화의 역습이다.

지난해 480만 관객을 동원한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님아)의 성공해 힘입어 한층 다양한 소재를 그린 작품이 잇따라 개봉한다. 극장가 최대 성수기인 8월과 추석 연휴가 겹친 9월 개봉한다는 점에서 그 자신감과 경쟁력을 엿볼 수 있다.

13일 개봉하는 ‘위로공단’(사진)은 단연 눈길을 끈다. 5월 세계 최대 미술축제인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임흥순 감독이 한국 작가로는 처음 은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일찌감치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덕분에 영화의 예술적 성취가 먼저 주목받았지만 그와 별개로 ‘위로공단’은 극영화 못지않은 흡입력을 갖춰 흥행 가능성을 높인다. 1970년대부터 지금껏 이어지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담담한 인터뷰로 구성했고, 이 같은 실제 경험담은 뭉클한 감동을 더한다.



“살아가면서 노동의 가치를 고민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랐다”는 임 감독은 “타인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영화의 의미가 충분한 것 같다”고 밝혔다.

9월 개봉하는 ‘기적의 피아노’는 장애를 딛고 꿈을 좇는 소녀의 이야기다.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자신을 믿는 부모의 응원에 힘입어 차근차근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을 담았다. 13일 개막하는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상영작으로 확정된 이후 티켓 예매와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할 만큼 입소문이 뜨겁다. 가수 박유천의 내레이션 참여도 화제다.

‘님아’의 분위기를 잇는 ‘춘희 막이’도 시선을 끈다. 한 남편을 두고 40년을 함께 살아온 두 할머니의 노년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극장 체인을 갖춘 배급사 역시 다큐멘터리 영화에 적극적이다. ‘기적의 피아노’는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맡았고, CGV아트하우스 역시 ‘님아’와 ‘목숨’에 이어 또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을 계획 중이다.

이해리 기자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9년 8월 11일〉

일본소설 원작 드라마 ‘퀸’ 첫 방송



인기 웹툰과 해외 특히 일본과 대만 등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리메이크작이 넘쳐난다. 이와 비례해 순수 창작 드라마에 대한 아쉬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조짐이다.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드라마 시청 수요 역시 늘어났고 이를 충족할 만한 콘텐츠는 그만큼 부족한 상황. 이미 검증된 원작을 리메이크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믿는 ‘생산자’가 많은 탓이다.

그 전에는 소설 등 출판물이 드라마의 ‘원천 콘텐츠’였다. 아직 인터넷과 케이블채널 등을 통한 해외 콘텐츠 흡수가 대중화하지 못한 때였다. 일본 소설은 그 재료 중 하나였다.

1999년 오늘부터 방송한 SBS 드라마 ‘퀸’(사진)이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한 본격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일부 언론은 일본 소설 판권을 구매해 제작한 첫 드라마라고 보도했다. ‘퀸’은 일본 시노다 세치코의 소설 ‘여자들의 지하드(聖戰)’를 원작으로 했다. 이미숙 김원희 윤해영 이나영이 주연한 작품으로, 이들은 ‘왕춘복’ ‘강승리’ ‘홍장미’ ‘오순정’ 등 각각 캐릭터를 드러내는 역할명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 커리어우먼들의 이야기를 밝은 톤으로 그렸다.

하지만 일본 소설의 TV드라마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이뤄졌다. 1986년 8월 3부작 드라마 KBS 1TV ‘고향을 어찌 잊으리까’가 있다. 시바 료타로의 작품을 원작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과 그 후예에 관한 이야기를 그렸다. 태민영 김성겸 김흥기 등이 주연해 당시로서는 드물게 일본 로케이션했다. 3년 뒤에는 재일교포 작가 정준문의 ‘벚꽃 바다에 지다’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 기획되기도 했다.

1990년 초 KBS 2TV ‘빙점’도 미우라 아야코의 유명 원작을 극화했다. 2004년 MBC가 다시 드라마로 만들기도 했다. 1992년에는 SBS가 ‘가을여자’를 방송했다. 히라이와 유미에의 동명소설을 원작 삼았다.

이 같은 드라마들은 대체로 호평을 받지 못했다. “알려진 원작의 프리미엄에 기대려는, 새로운 투자와 과감하고 신선한 기획보다는 ‘밑져야 본전’식의 안이한 발상이다. 표피적인 재미와 시청률만 노리는 상업주의적 의도”(1990년 2월 15일자 한겨레신문)라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아닐까.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빅 마우스

● **“학자금 대출 이자를 더 낮췄으면 좋겠다.”**(제국의아이들 임시완)
10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500인’에서. ‘첫 월급’을 소재로 한 시청자 MC가 “학자금 대출액이 너무 커 아직도 못 갚았다”고 말하자.

● **“이영애를 잡았다니 회당 출연료가 궁금해지네.”**(누리꾼 main****)
연기자 이영애와 송승헌이 출연하는 SBS 드라마 ‘사임당, 더 허스토리’가 10일 첫 촬영했다는 기사의 댓글 가운데.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변색, 편광렌즈란?
자외선 또는 반사광의 빛들을 차단해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렌즈입니다. 사물을 볼 때 반사되는 빛을 렌즈에서 차단하여 사물을 보다 명확하고 깨끗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편광렌즈는 운전, 등산, 골프, 낚시등의 레저활동 및 일상생활은 물론 안과 수술 후에 눈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편광 렌즈 착용 후

편광렌즈에 변색까지 되는것은 국내최초!
여태껏 써본 최고의 선글라스! 실내, 실외에서 밝기 차이 없어 계속 착용 가능.
골프, 낚시, 사이클, 등산, 평상시 등 각종 레저 커버!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기술로 집약된 제품
변색, 편광 선글라스는 모든 선글라스를 뛰어넘는 편안함을 선사할 것이다. 일단 선글라스를 쓰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강한 햇빛과 그늘 속, 심지어 터널에서도 선글라스를 벗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변색 선글라스의 묘미다. 여기에 편광 기능까지 갖춘 선글라스는 국내 최초다.

골프, 등산, 낚시, 사이클 등 야외 활동과 평상시에도 최적!
골프 하실 때 라인을 읽기가 수월해 타수가 줄고, 등산시에도 흐린 날에도 시야가 잘 확보되고, 낚시할 때도 물속의 고기가 보이는 등 완벽한 기능을 갖춘 이 제품은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 믿을 만한 제품이다. 시중에서 20~30만원대에 팔리는 이 제품을 70%로 할인된 69,000원에 한정 판매한다. Made in Korea

한여름 강렬한 햇빛과 야간, 터널까지 완벽 커버
강렬한 햇빛과 자외선을 커버하는 기능은 물론, 야간이나 터널에서도 선글라스를 벗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품이다. 야외 활동이나 강력한 레포츠 활동 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착용감이 탁월해 코나 귀에 전혀 무리가 없어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을 준다.


•제품명 편광변색 선글라스 레이저
1개 ~~138,000원~~ ▸▸ 69,000원


•제품명 보잉 선글라스 카리브
1개 ~~68,000원~~ ▸▸ 39,000원

남자라면 한 번쯤, 보잉 선글라스.
이세상 모든 캡틴에게 바칩니다. 탈 줄은 모르는데 할리 오토바이가 갖고 싶어 집니다. 이 모든 게 선글라스 하나 때문입니다. 이토록 잠자고 있던 남자의 야성을깨우는 선글라스가 또 있을까요? 어릴 적 동경했던 기동순찰대도 이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남자의 마음 한 켠에는 항상 보잉 선글라스가 자리하고 있는 모양 입니다. 여자가 끌리는 남자의매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름 아닌 눈이니까요.

[주·문·전·화] 1544-0247
[입·금·계·좌](예금주 : 바이원클럽) 국민 059401-04-135071

(주)바이원클럽 www.blacklion.co.kr • 블랙라이언 본사 (대리점 문의) Tel 1544-0247 • 종로지사 및 종로점 Tel 02-2234-4573~4 • 여의도백화점 직영점 Tel 02-780-7870
BLACKLION • 방배점 Tel 02-522-0247 • 강서구 공항점 Tel 02-2661-6240 • 송파점 Tel 02-417-9161 • 대구 퀸스로드점 Tel 053-268-5582 • 대전 대덕점 Tel 042-636-8110
• 세종시 세종점 Tel 044-866-3262 • 충북 영동점 Tel 043-743-7060 • 경남 창원점 Tel 055-289-9880 • 화성 동탄점 Tel 031-613-3583
NAVER 블랙라이언 검색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세요.